

교사도 학부모도 “온라인 수업 제대로 될까”

9일 사상 첫 ‘온라인 개학’

교사들 부랴부랴 준비 ‘부담’

다자녀 가정·도서벽지 ‘걱정’

지난 31일 3차례 개학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원격 수업 운영안을 마련, 각 학교별로 원격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했지만 9일 뒤 온라인 개학을 해야 하는 교사와 학교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랴부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전남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연수를 받긴 했지만 막상 9일 안에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만만찮다고 느꼈다”면서 “교실 수업을 온라인에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으로 학교를 대신해 학습을 책임져야 할 가정의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PC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거나 다자녀를 둔 경우는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교육청이 원격교육 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 광주에서는 313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생 16만 5000여 명 중 1712명이 스마트폰 지원을 희망했으며 전남에서는 848개교 재학생 18만 7000명 가운데 5262명이 ‘스마트패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광주에서는 1530명이 PC가 없어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고 답했고, 전남에서는 3610명이 집에 인터넷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비(PC와 스마트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김모(48)씨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컴퓨터가 1대뿐이라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봐야 하는 건지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접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없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워킹 맘 정모(여·37)씨는 “현재는 진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인데 공부까지 맡아달라고 할 생각에 좌절하다”며 “아이가 기계 다루는 것도 서툴고 집중력도 금방 흐트러져 일방적인 수업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초등 저학년, 맞벌이 부부 자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 조손·다자녀·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 학생 등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 격차가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폴 코트라이트가 오는 5월 1일 출간할 책 '5·18 푸른논의 증인'에 실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할머니가 전남도청 옆 임시분향소에서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책 속에 실린 1980년 5월 당시 사진. 한 남성이 긴급히 만들어진 관을 자전거에 싣고 폐달을 밟고 있다는 사진 설명이 붙어있다.

외국인 첫 5·18 회고록...“40년전 할머니 부탁 이제야 들어주네요”



옛 전남도청 건물에 보관됐던 카빈소총. 폴 코트라이트씨는 시민군이 전남도청에 카빈총을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시위대에게 나눠주었다고 썼다.

80년 광주 목격자 폴 코트라이트씨 '5·18 푸른논의 증인' 출간 헬기 사격·비행기 최루가스 살포·도심 학살 등 참혹함 담겨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목격한 외국인이 당시 상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한다.

폴 코트라이트(64·Paul Courtright) 씨 <광주일보 2019년 5월 14일 1·3면>는 자신이 목격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5·18 푸른논의 증인'을 오는 1일 광주와 미국에 동시 출간한다.

폴씨는 1980년 5월, 광주와 나주 등을 오가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참혹함을 목격했다.

폴씨의 책에서는 당시의 서슬퍼런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는 1980년 26세의 나이에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고 군에 의해 광주에 갇혀 본인이 겪은 1980년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5월 19일, 광주 버스대할실에서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젊은이를 봤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5월 20일 호혜원으로 돌아가던 길, 광주 우체국에서 자신의 팔을 붙잡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지요? 당신이 우리를 대변해줘야 해요'라고 말한 할머니의 부탁이자 명령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40년간 폴씨는 이 할머니의 명령(?)에 대한 책임감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책에는 5월 22일 광주로 가던 폴씨가 대형 시내버스 2대, 승합차 한대, 승용차 한대가 총알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여기저기 찌자국이 묻어 있는 장면, 전남도청 앞 분수대 인근,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비행

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최루 가스를 뿌린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날부터 폴씨는 계엄군의 광주 봉쇄로 갇힌 신세가 됐고 '현지의 정치상황에 개입하지 말라'는 평화봉사단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을 하기도 했다. 폴씨는 5월 24일 미국 타임지의 기자인 로빈 마이어 요청으로 시신 안치실로 가 어린 학생부터 나이는 할머니까지 처참하게 숨진 사망자들의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역하면서 처참한 광주 상황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는 책에다 같은 날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그날 밤 같은 평화봉사단원인 팀의 집에도 광주도심에 올려 퍼진 총성을 들었다고 썼다.

처참한 광주상황을 모두 목격한 폴씨는 미국 대사관에 광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26일, 폴씨는 서울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달뜨기	11:16
해질	18:54	달집	01:15

따뜻한 햇살
맑은 날씨로 대기 건조하겠다.

광주	맑음	9/18	보성	맑음	8/18
목포	맑음	8/14	순천	맑음	11/20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7/14
나주	맑음	7/17	진도	맑음	7/14
완도	맑음	9/17	전주	맑음	8/18
구례	맑음	8/20	군산	맑음	7/16
강진	맑음	8/17	남원	맑음	8/18
해남	맑음	7/15	흑산도	맑음	7/13
장성	맑음	7/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서~북	0.5
안바다	북서~북	0.5~1.0
면바다(북)	북서~북	1.0~2.5
면바다(남)	북서~북	1.0~2.5
남해서부	북서~북	0.5~1.0
안바다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면바다(동)	북~북동	1.5~2.5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24	07:08
	---	19:08
여수	07:51	01:47
		20:08
		13:32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	☀	☀	☀	☁	☁	☁
5/19	5/19	5/19	3/18	6/18	7/19	7/20

광주 도로 맨홀 481곳 관리상태 불량

66개 노선, 123km 점검 결과

광주 도로에 설치된 맨홀 수백 곳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와 5개 자치구가 최근 두 달 간 학교 주변, 도로 66개 노선, 123km에 설치된 맨홀을 점검한 결과 481곳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주변 도로 포장 면이 침하하거나 맨홀 뚜껑과 도로포장 면 높이가 고르지 않아 차량이나 보행자 이동 시 탈락거리 현상이 우려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적된 맨홀을 관리기관을 통해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큰 117곳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도로 맨홀(작업구)은 하부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안전을 위해 도로법 등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돼야 한다.

신석공 광주시 감사위원회 기술감사 담당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링 감사를 시행했다”며 “불편한 사항은 관할 구청 건설과나 빛고을 콜센터(120)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서민금융진흥원 협력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의 돕기에 나선다.

북구는 “4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총 100개 업체를 모집해 지원하며 1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분야는 ▲상관·입지 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점포 운영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세무·회계 등 9개 분야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